

金銅寶輪塔의 調査

張 忠 植

I、

근래에 와서 특수형 舍利具 몇점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소형의 塔型이었고, 또 한결같이 舍利를 安藏할 수 있도록 내부에 이미 공간 을 가진 것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6角 浮屠形舍利具로서 모두조사 발표①되었으며, 이번에 또 새로히 조사된 이 舍利具는 그 형태가 圓塔形이다. 屋蓋까지도 등글게 造成되었으므로 이를 「寶輪塔」이라 고 이름 붙여 보았다.

대부분의 遺物들이 原所在地를 떠나서는 정확한 關係知見을 얻기가 어려운 것과 같이 이 寶輪塔도 그 出處나 所藏處 등도 전혀 알 수 없이 市中 商人의 손을 거쳐 조사할 수 있었다. 다만 傳言에 의하면 忠淸道 지방에서 출토된 것이라 할 뿐 그 造成이나 奉安에 따르는 知見 등은 알 길이 없다.

이 小形塔은 一見하여 舍利를 安藏하여 塔內에 奉安하였던 舍利器임을 알 수 있었고, 또 그 형태가 圓形이란 점을 주목할 수 있었다. 또 이와같은 舍利小塔으로는 시대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기왕에 발견된 몇기의 예가 있어 이들과 비교되리라 본다. 이들은 대체로 喇嘛塔계통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舍利具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에 발견된 舍利具는 이들과는 다소 형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造成年代에 있어서도 喇嘛塔 계통의 小塔보다 앞서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이번에 새로 발견된 舍利小塔의 實測圖를 첨부하여 이들 小形塔을 비교 고찰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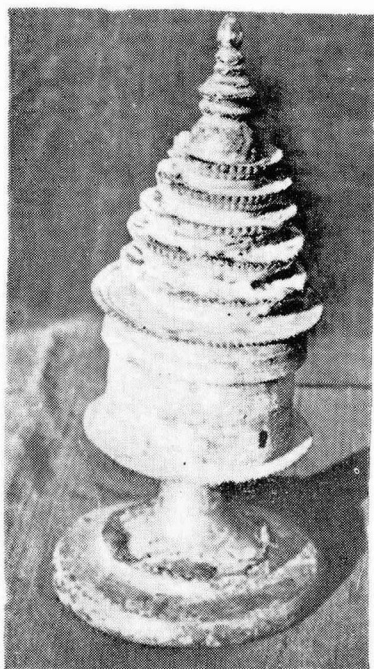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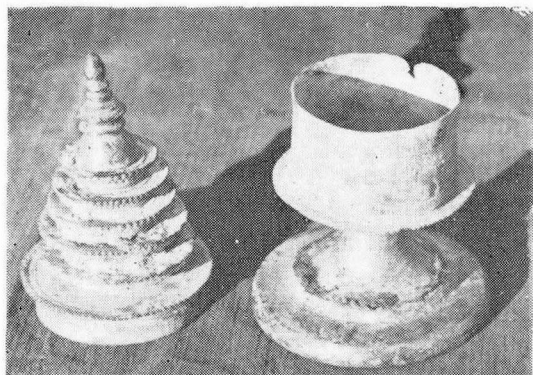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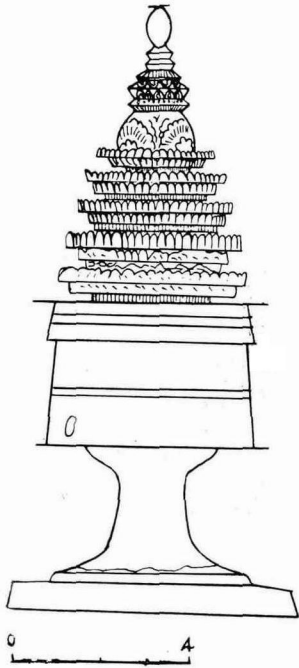
圖1. 金銅寶輪塔



金銅寶輪塔의 基部와 舍利容器

이舍利小塔의 전체적인 구조는 圓形의 舍利容器 위에 寶輪形 蓋部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圓形의 寶輪形小塔은 그 蓋部를 동굴계 造成한 것으로서 먼저 경주 박물관 소장인 新羅 土器 寶珠 등에서 그 형태를 推察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대가 다소 下代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一九五八年 강원도 금강산 所在 石塔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喇嘛塔양식에 속한다는 金銅舍利塔②과 月灘 朴鍾和先生 所藏 舍利塔③ 등이 이들과 비교 고찰 되리라 본다. 그리고 이와같은 圓塔의 관념으로서 우리들은 경주 남산 茸長寺址 佛像의 台座、그리고 和順 多塔峰의 圓塔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신라, 고려에 속하는 石造物로서 그 형태가 특이하여 일찍부터 알려져 있는 것이지만 원형의 대좌를 취하고 있는 것 등은 이 小形塔과 동일양식임을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小形塔은 金銅으로서 그 형태가 매우 우아하다. 높이는 13.3 cm, 底徑 6.5로서 중간이 上下로 분리되도록 造成됐다. 그러니까 이 小形塔의 본래 意匠은 아래 쪽 基部 위에 舍利容器를 덮는 두께로서 둥근 塔形의 寶輪을 놓아 圓形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金銅寶輪塔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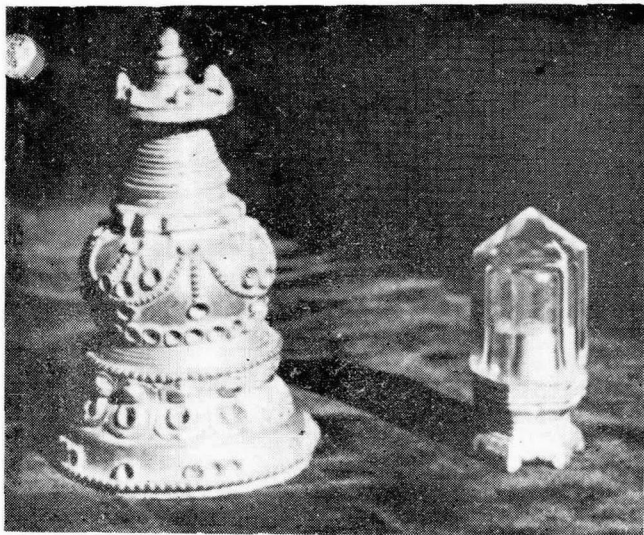


圖2. 金剛山出土 舍利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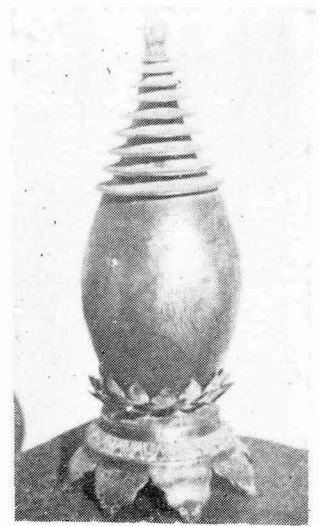


圖3. 舍利塔(朴鍾和氏所藏)

므로舍利를 安藏하도록 造營된舍利孔을 上層基壇 내부에 시설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들은 上壇의 받침위에 얹은 銅板으로 造成됐으며, 이는 깊이가 2·5 cm, 폭이 4·3 cm로서 내부는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차지했다.舍利孔을 형성하고 있는 金銅板이 얹은 것으로 봐 이는 基壇과 함께 鑄成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鑄成後 다시 부착시킨 것으로 보인다.

下層基壇은 역시 圓形으로서 기단 上部 중간 위치에 약 0·3 cm 높이의 물건(moulding)을 나타냈으며 그 이상은 흡사 향료의 받침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④.

상층기단의 받침 역시 얹은 銅板에 상부의 탑신 받침과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그 끝부분 全面에 돌아가면서 톱니 바퀴와 같은 무늬를 볼 수 있는 것도 이 탑의 특징이다. 그리고 상층기단 中央部에는 細線二條가 있을 뿐 다른 장엄은 없으며, 또 塗金이 없고 靑銅色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이舍利器의 두께에 해당하는 塔身에 대해 살펴보자.

탑신의 아래부분 접속 부분에는 약 0·6 cm 정도 아래로舍利孔이 덮여 있으며 이를 덮고 있는 塔身의 下端部 역시 두 가닥의 가느다란線이 돌려 있다. 그리고 탑신 받침의 上面에도 역시 두 가닥의 細線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탑신은 모두 5重이며 屋蓋 역시 5重이지만 때 층마다 옥개와 同一한 형태의 또 하나의 옥개가 있어 2重으로 옥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를 옥개 받침이라고 하기 보다는 옥개를 2重으로 나타냈다 함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이 小塔이 더욱 복잡하고 우아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탑신부의 上下 약 2·3 정도에는 靑銅의 녹소가 심하게 나타나 있어 과연 이 탑신의 造成이 單一 鑄成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鑄物로서 결합된 것인지는 금방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탑신부의 받침 즉 사리공의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이 별개의 鑄成임을 확인할 수 있어 그 造成이 일단 각층의 옥개를 결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엔 더

욱 뒷받침하는 것은 塔身 아랫부분 중앙에서 이미 上部를 결합시킨 心柱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옥개는 윗쪽으로 상당히 反轉을 보여 蓮華臺의 仰蓮처럼 보인다. ⑤ 또 옥개 사이에는 약 0·3 cm 높이의 屋身이 매층마다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屋身部에는 미세한 線刻⑥이 상하 수직으로 표현돼 있어 탑의 장엄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층으로 나타낸 屋蓋는 그 끝 부분에 돌아가면서 매층마다 印花紋을 가득히 나타냈는데 이는 필시 蓮華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 옥개의 上面에도 역시 두 가닥의 細線을 돌렸고, 그 사이에는 줄을 따라 寶珠와 線刻들을 가득 새겼다.

이와같이 寶輪을 나타내는舍利具로서는 앞서 열거한 금강산 출토 탑과 박종화씨 소장 소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즉前者는 同心圓으로 13條의 圓錐形 相輪을 나타냈고 후자는 圓板形의 九輪을 형성하고 있어 비교된다.

이들 옥개 상부에는 소위 覆鉢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이곳에는 半圓形으로 3 곳에 花紋을 가득 새겼다. 그리고 그 上部에는 相輪, 寶珠 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相輪部에는 단순히 U형과 ㄷ형의 蓮華紋線刻이 상하에서 보여 매우 주목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다시 고려돼야 할 것은 前記 금강산 出土 탑은 1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고 또 朴氏 소장舍利具는 銘文이 있어 至大 3년 즉 고려 忠宣王 2년(1310)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다⑦. 이들舍利具와 이번에 발견된舍利小塔과를 비교 고찰한다면 첫째 寶輪에 있어서 相異함을 발견할 수 있다. 圓塔의 관념에서는 동일한 수법을 보이고 있지만 옥개에 해당하는 寶輪이 이곳에서는 蓮華紋 仰蓮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로는 조성 년대를 들 수 있다. 즉 이 金銅小塔은 그 造形樣式과 함께 塗金手法으로 봐 앞서 말한 喇嘛塔 계통 보다는 훨씬 앞서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그와 같은 圓形 容器的 관념은 대좌와 둥근 숲 위에 두께를 형성한 꼭지를 지닌 土器의

형태에서 그始源樣式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우연한 사실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다만 흙과 금속이라는 재료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圓形蓋部를 形成한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小形塔에서도 磁器 또는 木器로 造成되는 舍利容器的 外盒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앞서 열거한 금강산 출토 등의 小塔에서 짐작되는 바이다.

III、

이상에서 우리들은 이 金銅小塔의 형태와 세부 수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원형의 舍利器는 간혹 발견되었지만 이와같이 그 屋蓋를 仰蓮의 형태로 나타낸 金銅舍利器의 발견은 처음이라 할 것이다. 그 형태 및 조성 수법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하리라 본다. 이 小塔이 喇嘛塔系의 圓塔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그 造成年代가 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 이들과 相異한 점은 앞으로 더욱 추구해야 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이 金銅舍利具는 塗金 수법이나 각부의 조각양식 및 相輪部의 蓮華紋 線刻手法 등으로 봐 그 造成을 9세기 중엽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金銅舍利具의 발견으로 인해 이와같은 圓塔系의 小塔은 무조건 元代 喇嘛塔 계통의 영향을 받아서 조성되었다고 보아 온 재래의 通念은 再考되어야 하리라 본다. 동시에 이 小塔은 上記 喇嘛系統의 두 탐보다 훨씬 섬세 유려하고 貴品이 있는 작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까지 이 小塔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未解決의 문제들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小塔의 原所藏處는 물론 거기에 얽힌 關係知見을 알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이와같은 희귀한 舍利器의 보다 명확한 해명을 위해서도 인쇄실을 가지고 더욱 기다려야 하리라 본다.

끝으로 이 金銅舍利器의 해명을 위해 처음부터 도움을 받을 주신 恩師

黃壽永館長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註〉

- ① 拙稿 「桃李寺 舍利塔의 調査」(考古美術 卷一三五호 一九七七年 9月 참조).
- ② 黃壽永 「高麗 金銅舍利塔과 靑磁壺」(考古美術 第三卷一號 一九六二年 一月) 참조.
- ③ 이 곳에 의하면 이 金銅舍利塔과 靑磁壺는 당시 金東鉉氏의 所藏이라 한다.
- ④ 黃壽永 「高麗在銘 舍利塔」(考古美術 第三卷二、三號 一九六二年 二、三月) 上記한 두 舍利塔 가운데 金東鉉氏 소장 塔은 單條의 圓座 위에 仰覆의 重單瓣蓮華座를 형성했고 또 朴鍾和氏 소장 塔은 八개의 卷脚 위에 陽刻된 覆蓮이 있음이 다르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小塔에서는 台座 部分에 이와같은 蓮華의 장식을 볼 수 없고 단순한 향료의 기단부와 같이 조성됐음을 주목할 수 있다.
- ⑤ 이 舍利小塔 塔身部의 육개는 그 형태에 있어서 이를 육개로 볼 것이냐 아니면 蓮華座의 仰蓮으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곳에서는 이 舍利器를 塔形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屋蓋로서 고찰해 둔다.
- ⑥ 이 微細한 線刻으로 인해 이들 屋蓋는 매층 製作後 결합됐음을 알 수 있다.
- ⑦ 黃壽永 前揭論文 P.P. 五二~五三 참조.

(東國大學校 講師)